

BOOK CAFE & BOOK CROSSING

흐르는 커뮤니티

나에게는 있지만 남들에게는 없을

시간과

공간과

그리고

책



①
철학책을 수집하는 김씨
더이상 책을 놓아둘 곳이 없어
고민이 많습니다.



②
이사를 가야하나...
책을 팔까...
고민하던중
북카페 프로젝트에
대관 소식을 듣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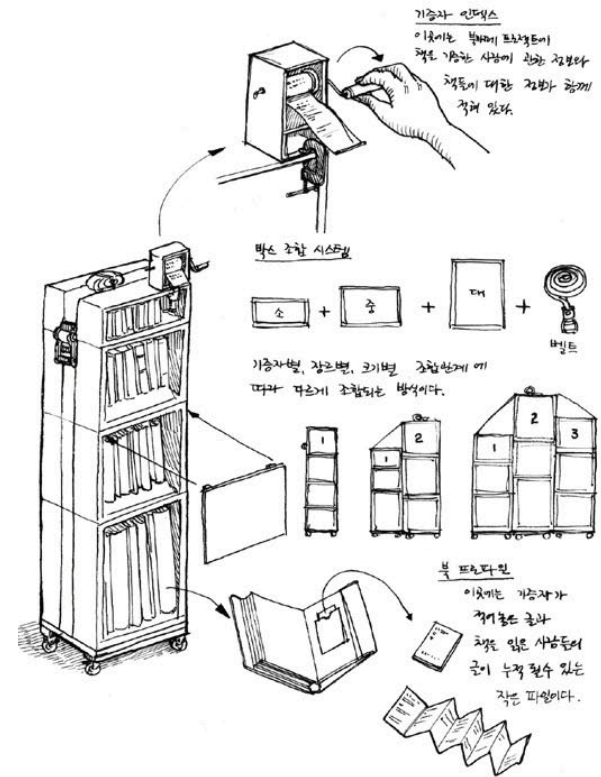
③
사람들나 공유할 수
있는 책들을 먼저
준비하는 김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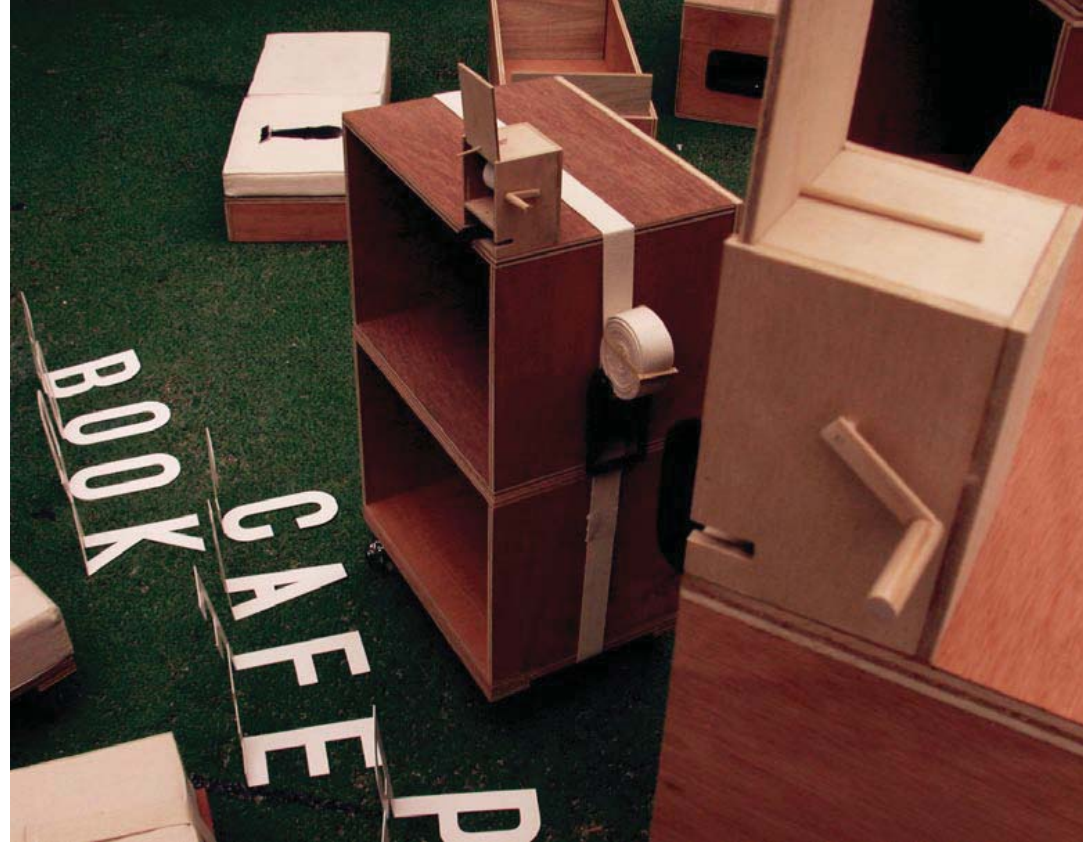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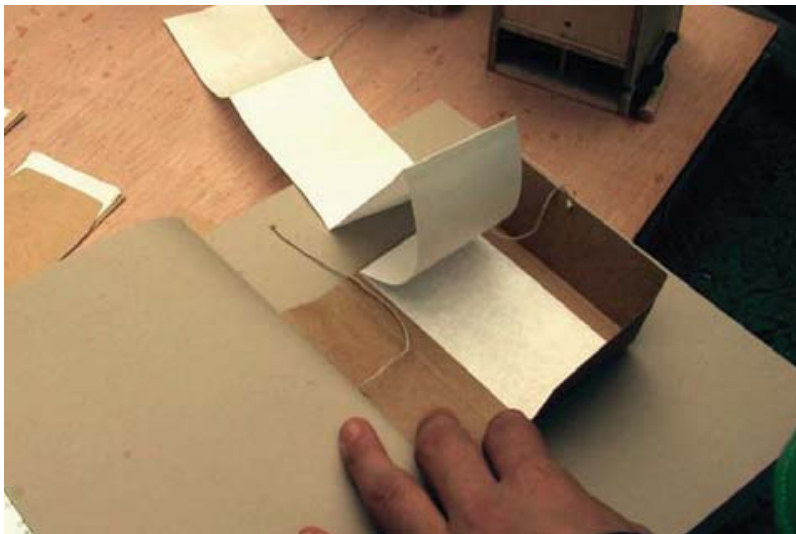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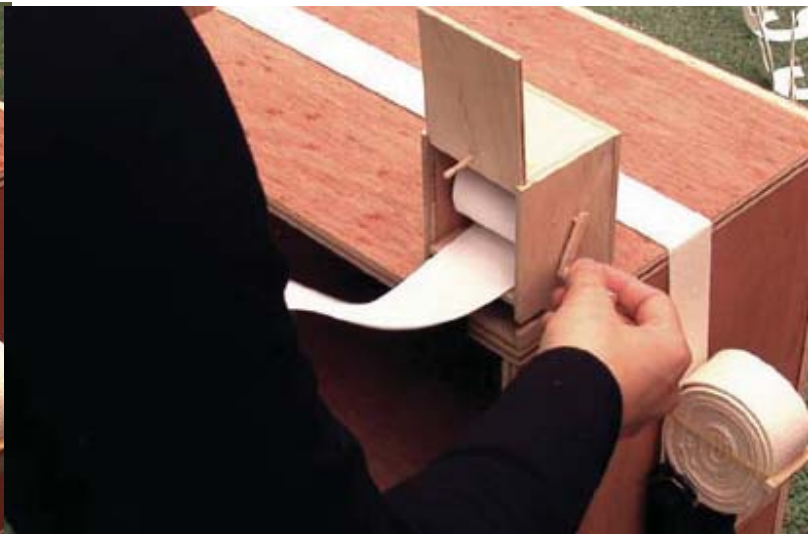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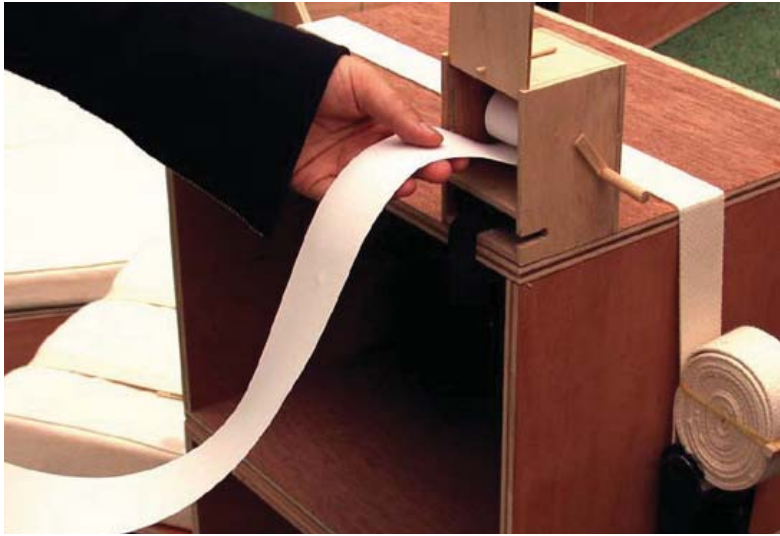
④
북카페 프로젝트에 참여중인것
북씨의 이발소는 참한다.
이곳에는 특히 김씨와 같이
질문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이
자주 들르는 곳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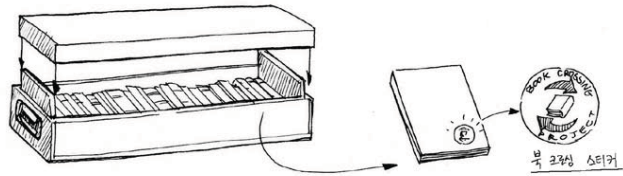


⑤
정기적으로 회원들과
모임을 벌이거나, 책도 함께
박씨의 이발소는 모인다.









① 기술서적을 좋아하는 최준, 그는 인스타그램이다. 매번 책을 살 땐 물론도 서점에갈 생각도 부족하랴.



② 같은반 친구에게 북 크로스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는 듣게 됐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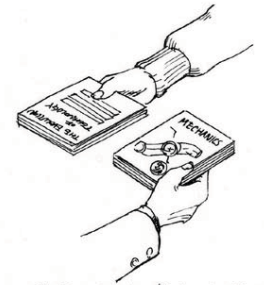
③ 문화가 가려준 장소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건넌 최준



④ 최준 동네에 1000여 권의 책을 문고화하는 휴식의 자선도 독서봉이지만, 손님들에게 용가 특별한 서비스는 과민한 북 크로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.



⑤ 휴식의 문고게이 단착한 최준, 주민자치위원회 북 크로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.



⑥ 책이 스티커를 붙인 순간 고난된다.

